

13) 죽음의 각 단계별에 따른 임종환자와의 대화

(1) 부정의 단계

환 자 :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간호사 : 의사가 암이라고 한 말을 믿기가 어렵지요?
환 자 :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없어요.
간호사 : (처음에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환자 옆에 가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환 자 : 나는 다른 의사에게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간호사 : 당신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협력해 주면 좋겠어요.
환 자 : 내가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은 어지러운 것이예요.
어지럽지만 앓다면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 : 어지러움은 괴로운 것이지요. 약을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 분노의 단계

환 자 : 당신에게 내 발에 흠이불을 덮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흠이불을 걷어찬다).
간호사 : 미안해요. 내가 왜 기억을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환 자 : 벨을 눌러 대답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만 해요? 나는 당신들이 모두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는 것을 알아요. 왜 당신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간호사 : 내가 가끔 오겠다고 약속하면 도움이 되겠어요?
환 자 : 나는 당신을 부르지 않았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나가세요.
간호사 : 당신이 나를 원할 때 오겠어요.

환 자 : (간호사가 약을 주려고 할 때 간호사의 손을 친다.)
간호사 : 이 약은 당신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좀더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교섭의 단계

환 자 : 나는 음대 학생과 약속했어요. 그 학생의 첫 독주회에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만일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느끼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닥쳐오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간호사 : 그 점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하면 좋겠어요.
환 자 :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가지 못했어요. 퇴원하면 다시 나가겠어요.
간호사 : 그 점에 대해서는 원목실에 계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해보시겠어요?

(4) 우울의 단계

환 자 : 내가 건강했을 때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간호사 : 당신은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느끼세요? (간호사는 환자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마간 머문다. 떠날 때 환자에게 잠시 후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한다.)



14) 임종환자의 상징적 의사소통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상징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삶에서 죽음으로 이행할 때 인간의 정신은 꿈과 상상의 상징적 이미지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 같이 보인다.

간호제공자는 고통스러운 감정(두려움, 분노, 슬픔)의 언어적 표현과 상징적인 표현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죽음과 임종에 대해 이야기하기 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환자의 정화(catharsis)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15) 임종환자와 의사소통 시 유의할 점

(1) 임종환자의 통증과 불쾌한 증상을 조절하라

임종간호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통증이나 증상이 잘 통제되면 환자는 비로소 인간다움을 되찾게 되고 그 다음 환자가 바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만남인 의사소통임을 기억하라.

(2) 임종환자들은 예외 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다.

때로는 우울증으로 말수가 적거나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환자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환자와 말하고 귀 기울여 듣는 언어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등을 어루만져 준다든가 침묵으로 손을 쥐어 주든가 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상 옆에 앉아주는 비언어

적인 의사소통도 포함된다. 특히,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특별한 시기에 환자는 의사소통을 원한다. 조력자는 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환자로부터 배우고 또한 환자를 간호할 수 있다.

(3) 죽음에 임박한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단순하고 쉽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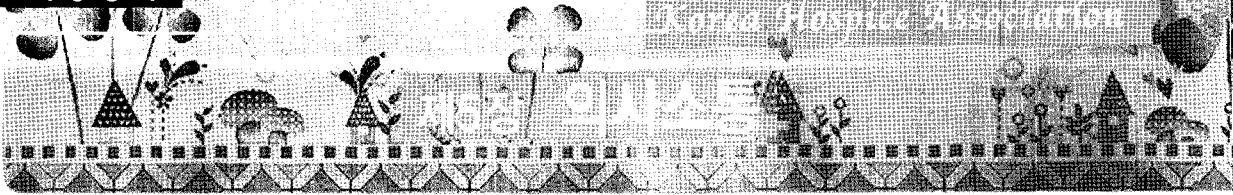
(4) 환자와 가족을 단위로 돌보는 것이 임종간호의 하나의 원칙이다.

(5)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환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 가족과의 따뜻한 의사소통이다. 조력자는 환자와 가족이 충분히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6) 환자와 조력자 간에 의사소통을 한다.

환자가 조력자에게 원하는 의사소통은 전문가로서의 관여인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관계이다. 조력자는 언제나 환자는 물론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을 가진 동일한 인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점은 환자와 의사소통 시 환자의 침상 옆에 앉는다는 일이다. 병태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환자와 조력자간의 의사소통의 기본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환자가 어느 정도로 병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는지 관찰하는 일이다. 환자와 조력자와의 의사소통 양상은 병명이 고지되었는가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임종간호에 있어 병명의 고지라는 문제는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7) 조력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한다.

중요한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입원하고 있는 상황은 가족에게 괴롭고 슬픈 일이므로 이를 지지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가족이 더욱 불안한 것은 직원과의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다는 일이다. 말기환자의 병태는 시시각각 변화하며 급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가족에게 매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의 의사소통의 기본은 설명이 질문보다 앞서는 일이다.

(8) 환자의 옆에 있어주는 것은 임종간호의 기본이다.

① 시간

특히 임종환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로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다른 어떤 환자보다도 민감하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자신이 간호사와 의사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 받는가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② 눈의 위치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에 의해서 환자와 간호하는 사람과의 시선이 수평이 되며 짧은 시간이라도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 환자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귀를 기울인다.

이는 환자가 아직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에 놓여있을 때 가능하다. 정말로 말기에 이르면 소리로 나오지 않으며 이 때는 손을 쥐어주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지만 특히 암의 말기환자는 꽤 최후까지 말이 가능하다. 이때는 적극적인 경청이 중요한데 이는 환자의 기분, 감정, 개인적인 사정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10) 환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서 환자의 얼굴표정, 전체의 모양, 목소리 등에 주의하면서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환자의 드러난 이야기 뿐 만 아니라 이면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11) 환자를 이해하는 태도를 취한다.

환자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태도이다. 환자의 마음, 기분, 감정을 조력자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환자에게 되풀이해서 묻는다. 자연스럽게 환자의 언어를 '이런 것이지요' 라고 말을 되돌린다.

환자	조력자
"나는 이제 틀렸지요"	"이젠 틀렸다고요. 그런 기분이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벌써 입원해서 반년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참 빠르군요. 벌써 6개월이 되었네요."
"예, 저는 점점 몸이 약해지는 듯 합니다."	"점점 쇠퇴해 가는 기분이네요."
"요즘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의 불안이 환자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이 불안을 누군가가 알아달라는 사실이다. 환자가 바라는 것은 죽는 일이 불안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다는 뜻이다. 환자의 불안과 간호사의 불안을 뛰어넘어 이해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임종간호의 진수이다.

(이 원고는 자원봉사자 교육교재인 호스피스총론 개정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